

종합

농업진흥지역에도 공장 짓는다

공공택지 의무 평균면적 131㎡로 하향조정

앞으로는 농업진흥지역에도 필요 한 경우 공장 증설이 허용된다. 또 공공택지에 건설된 아파트의 미 관양 방식을 위해 의무 평균면적이 145㎡에서 131㎡로 하향조정된다. 대한상공회의소와 국가경쟁력강 화위원회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민관 합동규제개혁추진단은 이같은 내용 을 포함한 '기업 현장으로 개선활동' 을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 제12차 회의에 보고했다. 추진단은 우선 기업의 입지 관련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농업진흥지역 에 불가피하게 공장증설이 필요한 경 우 최소한의 범위에서 공장증설이 가 능하도록 기업규제완화특별법이나 농지법을 개정키로 했다. 또 현행 주차장법은 공장면적에 비례해 주차장을 설치토록 하고 1만㎡ 이상인 공장에 대해서만 지자체가 별 도 기준을 정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1 만㎡ 미만인 공장도 종류와 규모별로 세분화해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개 선키로 했다. /연합뉴스



한국전력공사 등 나주 혁신도시 이전기관 임직원과 가족들이 29일 해남 대흥사에서 템플스테이를 체험하고 있다.

'제 2의 고향' 숨결 느껴요

나주 혁신도시 이전기관 임직원 가족 문화체험

한국전력공사 등 혁신도시 이전기관 임직원들이 여 름 휴가철을 맞아 남도를 방문, 앞으로 제2의 고향이 될 전남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한다. 전남도 혁신도시건설지원단은 29일부터 8월 7일까 지 2차에 걸쳐 한국전력공사 등 17개 이전공공기관 임직원 가족 80여 명을 초청, 남도문화 탐방행사를 실 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여름방학을 이용해 남도만의 차별화된 역사문화 자 원과 체험거리를 소재로 한 이번 탐방행사는 나주시 금천면과 산포면 일대 731만5천㎡에 조성될 광주·전 남 공동혁신도시 예정지를 돌아보는 것을 시작으로 해남 대흥사, 보성 녹차 밭, 나주호 등을 돌며 가족단 위 체험형 테마체험 형태로 진행된다. 특히 이번 남도문화탐방에서는 산사문화체험(템플 스테이)을 실시, 자연환경과 불교문화가 어우러진 사

찰에서 마음의 평정을 찾는 수행자의 일상과 전통문 화를 체험하도록 함으로써 이전기관 임직원 가족들에 게 소중한 추억거리를 제공하게 된다. 혁신도시건설지원단은 이번 행사를 통해 성공적인 혁신도시 건설을 위한 이전기관 임직원 가족의 공감 대를 형성하고 남도의 수려한 자연자원과 우수한 문 화유산을 적극 알리는 것은 물론 이전 공공기관 임직 원 가족들이 지방 이전에 대해 갖고 있는 막연한 불안 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전기관 임직원 가족 남도문화 탐방행사는 광주·전남지역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일체감을 강화하기 위해 전남도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행사 로, 공공기관 이전이 완료되는 2012년까지 지속적 으로 추진하게 된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이건희 전 회장 징역 6년 구형

파기환송심... 벌금 3천억도

조준용 특별검사는 29일 경영권 불법승계 및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과 삼성 임 원들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이 전 회장에서 징역 6년과 벌금 3천억원을 구형했다. 특검은 서울고법 형사4부(김창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파기환송심 에서 "정상적인 자금조달이 아니라 특수관계인에게 재산상의 이득을 제 공하고 경영권을 승계할 목적으로 시 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BW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해 삼성 SDS에 손해를 끼친 배임 행위가 인 정된다"라고 밝혔다. 이 전 회장과 함께 기소된 이학수

전 부회장과 김인주 전 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4년, 김홍기 전 삼성SDS 대표이사과 박주원 전 삼성SDS 경 영 지원실장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이 구 형했다. 특검은 상고심에서 유죄가 확정 된 조세포탈과 증권거래법위반 혐 의와 에버랜드 사건 무죄 등을 참작 해 구형량을 일부 조정했다고 설명 했다. 특검은 대법원에서 다시 판단하 라 고 한 삼성SDS의 BW 행사가격을, BW 발행 당시 삼성SDS의 비상장주 식의 장의거래 가격이나 서울행정법 원 소송에서 인정된 가격을 근거로 SDS에 손해를 끼친 배임 행위가 인 정된다"라고 밝혔다. 이 전 회장과 함께 기소된 이학수 1천539억원으로 추산했다. /연합뉴스

내년 '서머타임제' 도입 추진

다양한 레저생활 국민 편의 방안 검토

정부는 내년부터 서머타임제 도입 을 긍정 검토키로 하고 여성부, 보건 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 부 등 관련부처들이 다양한 레저생 활을 위한 국민편의 제공 방안 등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경제 및 노동계 등과 함께 대대적인 '정시퇴근 실천운동'을 전 개하고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서머타 임제로 인한 근로시간 연장 방지 대 책 논의 등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지난 28일 오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

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서울대 경제연 구소 등 7개 연구기관이 참여해 수행 한 '서머타임 도입 효과 연구용역' 결 과를 보고했다. 서머타임(일광절약시 간제)을 도입할 경우 한해 에너지절 감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편 의가 1천362억원에 달한다는 연구결 과가 나왔다. 서머타임은 여름철 시곗바늘을 1 시간 앞당긴 시각을 표준시간으로 사 용하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서울올림 픽이 열렸던 지난 1988년 등 모두 12 차례 시행한 바 있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for '빛의만평' (Light's Review) by Kim Jung-do. It features a cartoon illustration of a person sitting at a table with a sign that says '국민들 언론법 개정할 때야' (When we revise the National Press Act for citizens). The text below the illustration says '제발, 먹고 사는 문제나 신경좀...' (Please, pay attention to the problem of eating and living...).

'인감증명 제출' 연내 60% 없앤다

경쟁력강화책, 5년 내 완전 폐지키로

정부가 금융이나 부동산 거래 등을 할 때 인감을 확인하는 수단인 인감 증명을 요구하는 사무를 연내에 60% 줄이고 5년 내에 제도 자체를 폐지하 는 방안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29일 이명박 대통령 광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15 차 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골자 로 한 인감증명제도 개편방안을 마련 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1단계로 과도한 인감증명

요구에 따른 국민 불편을 줄이고자 중앙부처의 2009년 인감증명 요구사 무 가운데 부동산 등기 등 주요 재산 권 관련 사무를 제외하고 60%인 125 개 사무를 없애고 신분증이나 인·허 가증 등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또 부동산 등기 관련 사무 등 이번 에 폐지되지 않는 인감사무도 자신이 직접 기관을 방문하거나 계약서·위 임장 등에 공증을 받는 경우 인감증명 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정부는 2단계로 내년부터 인감증 명 대체수단을 마련해 시행하고 5 년 내에 인감증명제도 자체를 완전히 폐지할 계획이다. 정부는 서명을 본인 확인의 보조수 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내년까지 주민등록법을 개정해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같은 신분증에 서명 등록을 권장하고, 주요 민원은 접수 때 본인 휴대전화로 문자서비스(SMS)를 제공하는 '통합민원 SMS 문자서비스'도 구축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귀화 한국인이 이 참새 관광공사 사장 임명

공석 중인 한 국관광공사의 신임 사장에 독 일 출신의 귀화 한국인인 이참 새(李參·55·사진) 씨가 임명됐다 고 문화체육관광 부가 29일 공식 발표했다. 유인촌 문화부 장관은 30일 오전 신임 이 사 장에 대한 임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지난 1986년 한국인으로 귀화한 이 씨는 최근 KTV '이참의 업그레이드

코리아'에서 관광 발전과 한식의 세 계화 등 아이템으로 프로그램을 진행 해왔다. 지난 대선기간에는 이명박 대통령 캠프에서 선거대책위원회 한 반도대운하 특별위원회 특보로 활동 했고 올해 1월에는 대한스카이하프 임 원을 맡기도 했다. 신임 이참 씨의 관광공사 사장 임 명은 귀화 한국인 또는 외국인인 공 직 진출 확대 '신호탄'이 될 수 있어 관가의 주목을 받고 있다. 신임 이 사 장의 임기는 이달 30일부터 3년간이 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for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및 최고' (Debtors' Objection Filing and Demand). It mentions a shareholder meeting on July 27th and a representative named Lee Beom-sin.

Advertisement for '상속한정승인공고' (Succession Limited Approval Notice). It provides details about a public notice for inheritance approval, including date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Yang Hyeon-hoon.

Advertisement for '명리철학 수강생' (Mingli Philosophy Course Students). It lists benefits of the course, such as learning to overcome difficulties and improve oneself, and provides contact information for the research center.

Advertisement for '사/원/모/접' (Staff/Employee/Model/Job). It lists job openings for a restaurant, including positions like waiter and cashier, and provides contact information for the recruitment agency.

Advertisement for '광주대학교 평생교육원' (Gwangju University Lifelong Education Center). It lists various courses and programs, including English, computer, and management courses, and provides contact information for the center.

Advertisement for '아파트 단독 다세대주택 상가 토지 경매취하부동산금매' (Apartment, Single-family House, Multi-family House, Commercial Building, Land Auction). It offers a 15-50% discount on real estate and provides contact information for the real estate agency.